사람들 전주매일 15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장계농협 등, 정월대보름 맞아 오곡밥 나눔활동 실시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 수), 농가주부모임장수군연합회(회장 백영남)는 지난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오곡밥나눔활동을 전 개했다.

농가주부모임의 오곡밥나눔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 회공헌활동으로 올해도 관내 취약계층 80가구에 우리농산 물로 만든 오곡밥과 나물(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김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가호호 방문으로 안부를 전했다.

백영남 회장은 "새해 첫 보름달을 같이 맞이하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대보름음식을 함께 나눔으 로 행복을 느낀다."며 "지역주민 모두에게 둥근 보름달처럼 올 한해도 福(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곽점용 조합장은 "올 해도 어김없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과 함께 하고자 하는 농기주부모모임의 따 듯한 마음이 지역내 온기를 전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 회공헌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시 부량면, 제2회 벼고을 대보름놀이 개최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벼고을 대보름놀이'행사를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 의 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500명 이 참석해 풍성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벽골제농악단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됐으며, 라 인댄스, 난타 등 명금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져 주민들과 방 문객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 서는 전통놀이와 상설체험이 운영되어 제기차기, 활쏘기, 짚풀공예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오곡밥과 나물 등 대보름 음식을 나누며 한 해의 건 강과 풍년을 기원하고 풍성한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활면지사협, 정월대보름 오곡밥으로 건강 기원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최은미)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곡 밥, 나물, 부럼으로 민들어진 꾸러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 층 10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 을 전하고, 정성껏 준비한 오곡밥꾸러미를 통해 이웃들이 겨울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미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 한 나눔을 통해 힘을 얻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연구생애 전주기 우수 연구자 지원

조교수 ~ 정년 이후 교수까지 우수연구자 선정… '스타교수' 육성 추진 박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연구생애 전주기에 걸친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Top100 대학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조교수부터 정년 이후까 지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이른바 스타교수 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구생애 전주기 우 수 연구자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 성과가 탁월한 우수교원 19명을 선정해 '펠로우(Fellow)'로 지정, 포 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연구자는 입용 5년 이내의 'JBNU Young Fellow' 와 부교수 및 승진 5년 이내의 'JBNU Fellow', 교수 승 진 5년 이후부터 만60세까지의 'JBNU Star Fellow', 만 61세 이상과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는 'JBNU Distinguished Professor' 등으로 나눠 시상했다.

이에 연구실적 평가와 연구계획 적격여부 평가를 3 단계로 평가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 6명, 자 연계열에서 7명의 펠로우를 선정했다.

JBNU Star Fellow에는 정석희 교수(간호학과)를 비롯 해 이준기 교수(과학교육학부), 정광운 교수(고분자ㆍ 나노공학과), 정현아 교수(식품영양학과)가 선정됐다. JBNU Fellow에는 양영란 교수(간호학과), 임선아 교수 (교육학과), 정호진 교수(경제학부), 강재욱 교수(유연 인쇄전자전문대학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강 현구 교수(의학과) 등이 각각 선정됐다.

JBNU Young Fellow에는 백지현 교수(간호학과), 신유 정 교수(과학학과), 노산하 교수(경제학부), 최진하 교 수(화학공학부), 이한얼 교수(신소재공학부), 김용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

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제빵기능사 자격취득과정'을 2

월에서 7월까지 총40회기, 6명 참여로 무주상상반디숲

직업군을 반영한 과정으로 수료 후 취업 및 자립역량강

참여자 유모(베트남)씨는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 과정을 통

해 전문분야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요. 열심히 노력할



교수(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강다래 교수(동 물생명공학과)가 선정됐다.

특히 인문과 자연계열에서 각각 탁월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문종 교수(사학과)와 이중희 교수(나 노융합공학과)를 각각 JBNU Distinguished Professor로 임 명해 정년 이후에도 전 주기에 걸쳐 연구 활동이 중단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이날 선정 교수들에 대한 시상식 및 임명식을 열고 과제당 연구비와 해당 분야에서 전북대 대표 석학임을 상징하는 명패와 현판, 명함 등이 담긴 'JBNU Fellow Box'등을 수여했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대학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선 도전적 연구와 미 래 신기술 개발, 융·복합 연구 육성이 매우 중요하 다"며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후학에 귀감이 돼 우리대학의 학문적 조직 문화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체력검사 · 면접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사무)는 12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관련 체력 검사 및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에는 총 20명 선발에 18명이 지 워하여 미달을 기록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순창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폭 늘어 남에 따라 그쪽으로 일자리를 옮겨지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체력검정 종목은 Δ 앉았다 일어서기 Δ 장애물 돌아오기 △외발서기로 총3종목이었고, 체력검정을 마친 후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층 면접을 실시 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통학로 등 어린이들 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아동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 집 중 배치 되어 아동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선발 된 아동안전지킴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주변에서 치안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상현 서장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이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봉 사 정신과 아동 안전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분을 공정하게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황산남양번영회, 남양 달집 놀이 행사 진행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이 황산남양번영회(회장 김병곤)가 을사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남양 달집 놀이 행 사 를 수의제 경로당 앞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대동제, 달집태우기, 농악놀이, 대보름 전통음식 나누기 등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 는 행사를 열었다.

특히 달집태우기는 소원을 빌며 액운을 태우고 새해 희망 의 불길을 피워올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얼이 담겨 있는 세시풍속 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 면민들

김병곤 회장은 "대보름의 달빛은 어둠, 질병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길 바라며, 황산면민 모두가 재난 재해 없는 풍요로운 2025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B1 요리교실에서 진행된다. 제빵기능사 자격취득과정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 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합하는데 그 뜻이 더욱 깊다. 그램 중 하나로서,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 지역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담당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것이며, 제빵기능사 자격 취득이 이들의 경제 적 자립과 사회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 /무주=전문선 기자 했다.

가격취득 과정

전주매일

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께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제빵기능사 자격취득과정' 개강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_{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언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10-9642-2725
33-3064
36-3787
10-3682-6157
10-2300-4253
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덕면 주민자치위, '풍요 기원 오곡밥 나눔행사'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선열)가 '풍요 기원 오곡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성덕면 26개 경로당으로 오곡밥과 삼색 나물 배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의 대표 음식인 오곡밥과 삼색나 물(고사리, 시금치, 고구마순 무침)을 함께 나누며 한 해의 풍요와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 려됐다.

최선열 주민자치위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 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아 주 뜻 깊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